▲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바위안마을. 오른편 산모퉁이 물돌이못에서 양촌선생이 낚시를 했다는 전설이 있다.

▲ 숲이 우거져 단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어래바위

명히 경기도와 충청도에 걸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산은 주로 충청도 충주목의 산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의 충주목 산천조山川條에 이 산이 나오는데 ‘충주에서 서쪽 91리에 있고 망이성봉수望夷城烽燧가 있으며 동으로 음성현陰城縣 가섭산迦葉山에 응하고 서로 경기 죽산현竹山縣 건지산巾之山에 응한다’ 하였다. 건지산은 지금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뱅골 뒷산이며 바로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의 앞산이다. 이러한 건지산은 때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陽智面(내사면) 일대인 양지현陽智縣에 편입되기도 했었는데 역사적으로 망이산과 망이성봉수는 충주목에 속하고 충청도에서 관장했지 경기도에서 관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이천의 율면 산양리의 양촌은 늘 ‘충주의 양촌’으로 불리고 알려져왔다는 것이 한승남씨의 설이다.

그는 망이산 주위에 양자가 들어가는 마을을 조사해보니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良德里에 ‘양지울’이 있는데 이는 망이산에서 남쪽이지 동쪽이 아니더라 했다. 망이산 동쪽을 살피는데 1998년에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5천분의1 지도에, 율면 산양2리에서 ‘양아리’라는 마을이 발견되었다. 이는 망이산의 정동쪽이고 낮은 구릉 아래 남향南向을 하고 있었다. 이곳이 율면민속자료보고서에서 ‘5백여년 전에 권양아라는 대학자가 살았던 유래에서 양아리가 되었다 고 기록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의 충주목 인물조人物條에 ‘권근權近 고려계좌사류우주高麗季坐事流于州거주남양촌居州南陽村 인호양촌因號陽村 : 권근. 고려말에 사건에 연좌되어 고을에 유배되었는데 고을의 남쪽 양촌에 거주한 고로 호를 양촌이라 하였다 고 나온다. 이에 대해 한씨는 ‘역사적으로 권양촌이 충주에 귀양간 일은 없다 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지승람에서 충주에서 귀양살이한 것으로 적은 것은, 양촌이 공양왕 2년, 1390년 2월에 계림옥雞林獄에 체계逮繫되어 흥해로 이폄移貶되었다가 4월에 김해金海로 양이量移되고 5월에 청주옥淸州獄에 체계되고 6월에 수재水災의 이변으로 사면되어 한양으로 돌아갔다가 7월에 또 익주益州(익산益山)에 폄류되어 그곳에서 입학도설入學圖說을 짓고 11월에 종편從便으로 풀려나서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충주의 양촌으로 가 은거하며 예경절차禮經節次를 고정考定하게 된 바를 볼 때에, 유배와 종편 간에 공이 충주의 양촌에 ‘은거 한 것을 ‘유거流居 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승람에서 양촌이 충주의 고을 남쪽이라고 한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다. 앞서 나온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의 양지울이라는 곳도 충주의 남쪽이 아니고 또한 곳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冶洞里 및 양촌리陽村里가 선생의 구업이라는 설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곳도 충주의 치읍治邑에서 가까운 북쪽이지 남쪽은 전혀 아니다. 또 후손의 일부가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의 남옥이(나메기)라는 곳을 선생의 구업 양촌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그곳 또한 충주의 서북쪽이지 남쪽이 아니다. 굳이 이곳을 음성고을을 기준으로 본다면 동남쪽이 될 수는 있을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소태면의 양촌리도 음성고을의 동남방에 속한다. 그러나 신니면 모남리나 소태면 양촌리가 충주가 아닌 음성고을에 편입되었던 적이 없다.

망이산 동쪽 율면 산양리의 양아陽阿는 아阿가 ‘언덕 이므로 ‘마을 의 뜻인 촌村과 같이 볼 수 있어 양촌과 양아를 같은 일컬음으로 비정함에 타당성이 있다. 또 양아를 ‘양야陽也 로도 표기했다 하는데 양야에서 야也는 양陽을 강조함에 쓰인 어조사 정도로 보아 무방하겠고 양아와 양야가 모두 단순한 차음借音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아리 앞길은 서울의 과천과 용인의 양지, 안성의 원삼、백암、일죽에, 음성의 무극에서 충주와 문경새재로 이어지는 삼남대로三南大路였다고 한다. 이 대로는 고려 때는 서울 한양뿐 아니라 개성으로 이어졌다. 망이산 동쪽에는 너르고 비옥한 평야가 펼쳐지고 이러한 곡창을 팔성산八星山과 임오산壬午山의 자락이 비산비야非山非野를 펼치며 둘러싸고 있다. 개성과 한양에서 영호남은 너무 멀고 충청도도 그리 가깝지 않다. 그러나 양아리 일대는 옛적 한양에서 이틀 길이고 개성은 사나흘 거리였다. 또 이곳에서 소출되는 양곡은 장호원의 청미천을 통하여 한강과 예성강으로 이어지는 뱃길로 한양과 개성으로 실어다 먹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곳은 개성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집안에는 아주 좋은 별업지의 하나였다는 것이 한씨의 설이다.

2006년 12월에 충북 음성군에서는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龍垈里의 안터마을을 양촌이 ‘우거寓居 했던 곳으로 고정考定하여 이곳에 군수 이름으로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다. 그런데 답사해 보니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와 경기 이천시 율면 산양리는 아주 낮은 구릉자락을 경계로 인접해 있고 ‘양아리’와 ‘안터’는 상거가 5백미터 남짓으로 보였다. 그저 낮은 재너머의 이웃마을이었다. 전설에 이곳 안터에서 양촌선생이 살면서 그곳에서 능선자락으로 조금 내려가 있는 ‘바위안’이라는 마을 앞을 흐르는 내에서 낚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 유허비문에 ‘망이산望夷山의 영봉靈峰 동쪽에 자리한 이곳은 본래 충주목忠州牧 두의곡면豆衣谷面 양촌리陽村里 지역으로 광무光武 10년, 1906년에 음성군에 편입되고 1914년 군면郡面 폐합에 따라 삼성면 용대리라 하였다. 옛부터 명현이 살았던 곳으로 양촌 권근선생은 여기에 우거寓居하며

5면으로 계속

▲ 용대리 안터마을고개에 있는 양촌선생유허비. 근년에 음성군수가 세운 것이다.

▲ 삼성면 용대리의 안터마을. 앞에 가린 산 뒤쪽으로 조금 낮게 보이는 것이 망이산이다.

인사의 말씀

權 海 玉
편집고문

경애敬愛하는 족친여러분!

저는 스스로의 부덕不德한 소치로 다년간 족친여러분께 두루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제겐들 어찌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까. 나름으로는 남에게 죄짓지 않고 악하게 하지 않으며 정도를 걷고자, 있는 그대로의 소박한 양심으로 산다고 살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지난번 대한주택공사에 재직시 부지불식간의 타의에 말미암은 불미사가 많은 경향의 족친께 하염없는 실망감을 안겨드렸던 점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저는 거듭되던 사면복권의 시혜에서 외롭게 제외되면서 기약없는 고통과 회한의 세월을 침잠해 있다가 이번에 새 정부의 배려로 특별사면의 은전을 입어 비로소 본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제가 이렇게 밝은 햇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열선조列先祖의 음우陰佑가 아니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선대에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을 가다듬어 몸을 사립니다.

존경하는 족친 여러분께서 그동안 제게 베풀어주신 격려와 문병의 위로에 대한 감사를 우선 지면으로 말씀드려올립니다. 저는 이제 더욱 반성과 참회의 정신으로, 70여 평생을 살아온 역정歷程을 교훈삼아 여생을 무겁게 하여 기왕의 허물을 털어내며 미력이 남으면 이를 우리 안동권씨문중과 종친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질정叱正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태산같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티끌로도 보답하지 못한 점 해량海諒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빕니다. 우리 안동권씨 족친여러분의 가정에 경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찾아뵙고 직접 인사드리며 회포를 나눌 기회가 머지 않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2008년 8월 21일
13·14대국회의원權海玉재배

*권해옥權海玉 편집고문의 연락처는 02-585-8885 011-221-6566입니다.

▲ 어래바위에 모인 답사반 일행. 오른쪽이 향토사가 한승남씨이다.